국내
마감시황

2026.4.8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미국-이란 휴전 합의에 상승

미국-이란,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2주간 휴전 합의
외국인·기관, 코스피 동반 순매수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5,872.34pt (+6.87%)	1,089.85pt (+5.12%)	882.81pt (+7.52%)
달러-원 환율	**韓 10년물 국채 금리**	**S&P500 선물**
1,475.20 원 (-25.8 원)	3.6180% (-13.6bp)	6,832.50pt (+2.64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-54,135 억	-5,835 억	+4,402 억
외국인	+24,722 억	+2,423 억	+15,367 억
기관	+27,112 억	+3,710 억	-20,104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상승했습니다. 장 시작 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.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자 WTI 유가는 16% 가량 하락했고, 미국 지수 선물과 아시아 증시 전반이 반등했습니다.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. 이날 KOSPI는 6.87%, KOSDAQ은 5.12% 올랐습니다.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5.6조원, KOSDAQ은 약 13.0조원을 기록했습니다.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를 2.5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/전자와 건설 업종을 매수했고, 운송장비/부품과 제약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기관은 KOSPI에서 2.7조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. 기관은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, 유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,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도 지정학 우려에 눌려 있던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는 7%대, SK하이닉스는 12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전후 재건 기대감에 힘입어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. 거래대금 증가에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그 외 조선, 자동차, 원전주가 올랐습니다. 반면, 휴전으로 인해 방산주와 정유주가 하락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대우건설(+29.97%), SK하이닉스(+12.77%), 키움증권(+7.21%)이 올랐고, 한화에어로스페이스(-3.45%), 한미약품(-2.66%), S-Oil(-2.35%)이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